

# 예금 금리 인상에 '머니무브'... 이틀 만에 은행 1.7조 몰려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  
신한銀 등 예적금 상품 금리 조정  
시중은행 정기에금 잔액 514.7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머니무브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연 0.1~0.3%포인트 인상했다. 정기에금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0.50%에서 0.75%로 ▲2년 이상 3년 미만 0.55%에서 0.85% 등 금리를 0.25%포인트 높인다. 또 정기적금은 ▲1년 이상 2년 미만 0.70%에서 1.00%로 ▲2년 이상 3년 미만 0.85%에서 1.15%로 금리를 각 0.30%



서울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씩 높인다. NH농협은행도 예금 금리를 인상을 진행했다. 상품별로는 거치식 예금인 큰만족실세예금(개인)의 1년 금리를 연 0.60%에서 0.85%로 높이면서 금리를 0.25%p 인상했다. 또 ▲개인 정기적금 금리 1년 기준 0.70%에서 0.95% ▲법인 정기적

금 금리 1년 기준 0.55%에서 0.90% 등으로 최대 0.35%p 인상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상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케이뱅크와 신한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 조정을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부터 코드K 정기에금 금리를 전 구간 0.2%p 인상했다. 뒤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신한은행이 1년 만기 거치식 예금인 '신한 S드림 정기에금'의 금리를 0.60%에서 0.85%로 높이면서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p 올렸다.

이 밖에도 KB국민·하나은행도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이달 초 중으로 내용을 확정지은 뒤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해 이달 초 금리 조

정 적용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금리 인상 후 시중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에금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514조7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난 25일과 불과 이틀만에 1조6800억원이 몰린 수치다. 더불어 지난 7월 말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동안 4조865억원이 늘어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안전한 상품을 찾는 자금 일부가 예적금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준금리가 연내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신한금융 “기업 철학 ESG 중심으로 전환”

ESG-디지털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ESG·디지털 전문가 참여  
탄소중립 위한 국가적 협력 촉구

신한금융그룹은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ESG-디지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항해: ESG경영과 디지털 융합을 넘어'라는 주제로 국내외 ESG 및 디지털 분야의 석학들과 글로벌 기업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어서 ESG 관련 국내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축사를 통해 ESG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혁신의 속도는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기준은 바로 ESG와 디지털"이라며 "E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G와 디지털 기반의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신한도 기업의 철학을 ESG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적 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개최특별연설을 맡은 UN지속가능성장네트워크 회장이자, 콜롬비아대 석좌교수인 제프리 삭스는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UN 기후변화 특사이자, 전 영란은행(BOE) 총재인 마크 커니도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통해 "국제 사회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연합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범국가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진행된 세션을 통해 ▲ESG 메가트렌드의 정립과제: ESG 투자 및 경영을 위한 최선책과 로드맵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 및 세계경제구도의 재편:미중관계 변화의 지정학적 함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기회와 도전:핀테크, 테크핀, 그리고 금융산업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금융의 역할 등 4개 주제로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제컨퍼런스를 신한 ESG 가치 기준을 '이것이 옳은 일인가?'로 정하고, ESG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신한이 고객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

/이영석 기자

## BNK경남銀, 걷기운동으로 ESG경영 실천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 진행

BNK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 탄소 절감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BNK경남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를 9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는 걸음 수 측정 전용앱으로 목표 걸음 수를 사전에 설정하고 참여자들이 목표 걸음 달성 시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뉴트랜드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에 동참해 목표 걸음 수 1000만 걸음을 채워 기부금 1000만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부금 1000만원은 신생아내외와 질병 등으로 구성된 출산용품세트로 바뀌 창원시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미혼모 보호시설 생명터와 물푸레에 나눠 지원된다.

고영준 경영전략그룹장은 "ESG경영



BNK경남은행이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를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BNK경남은행

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환경과 사회에 초점을 맞춰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임직원과 가족들이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에 동참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회취약계층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나눔걷기 기부 챌린지 결과와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 하나은행, 메타버스 플랫폼서 금융교육

첫차 구매 상식 등 총 3편

하나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지난 25일부터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교육 콘텐츠는 총 3편으로 제작했으며 ▲첫차 구매 상식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한 주거 지원 혜택 등의 주제로 아바타 은행원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에게 금융정보를 전달한다. 또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아바

타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25일에 방송된 '첫차 구매 상식' 편은 아바타 은행원이 첫차 구매와 관련한 비용 및 보험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자에게 커피쿠폰 및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후 26일에 방송한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편에서는 하나은행 세무 전문가가 친근한 아바타로 등장해 근로소득 및 주식투자 관련 절세 방법을 전달하고 Q&A 시간에는 MZ세대 참여자들과 음성과 채팅을 활용해 다양한 질

문과 대답이 오갔다.

더불어 이날 오후 3시 방송 예정인 콘텐츠는 '부린이를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을 주제로 아바타 은행원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자와 자유로운 소통이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혁신TFT 관계자는 "디지털을 선호하는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메타버스를 통한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MZ세대에게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금융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 KB국민銀, 세번째 독립영웅 숨겨진 이야기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KB국민은행은 왈우 강우규 선생의 의거일을 맞아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KB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의 세번째 스토리다. 제작에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했고, 내레이션은 영화배우 이정현이 참여했다.

영상은 일제시대의 열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백발의 노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업적과 일

대기를 담았으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그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했다. 해당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침체된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대한민국의 참 어른 왈우 강우규 의사의 애국정신에 감명받아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며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독립운동가의 숨겨진 이야기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